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서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현명한 령도

최 성 철

우리 김일성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민족이며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강의한 정신력으로 력사의 시련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온 인민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견줄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서 힘있게 과시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높이 발양하여야 할 김일성민족의 제일가는 정신력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233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정신력을 나라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명선으로 보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인 일심단결로 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당앞에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설 때마다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왔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발휘하는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의 주되는 총화이며 선군조선의 위대한 대고조력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전후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떨쳐온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비약과 전진의 무기이다.

이 위대한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대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로 수놓아올수 있었으며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장의 봉화를 지펴올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것을 결심하시고 주체97(2008)년 12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다시한번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발을 들고 내달릴것을 호소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해방후 일제가 파괴한 전기로를 2달만에 되살려 첫 쇠물을 뽑았고 것처럼 간고하였던 주체45(1956)년에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6만t 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한것도 높은 정신력의 발현이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힘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력에 원천을 두고있다.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뚫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체 인민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강선의 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천리마의 기상으로 대고조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킬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강선의 봉화따라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중요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전례없는 대고조진군속도가 창조되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으로 부른 당의 호소가 우리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전고가 터져오를 력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고히 예고하여주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년대들에서 우리 인민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고 억세게 다져온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기본추동력으로 내세우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무한대한 정신력의 근본핵으로 보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총공격전에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었다.

새로운 대고조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전이며 대고조에서 높이 떨쳐나가야 할 일심단결의 정신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실지체험을 통하여 수령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래이라것을 심장으로 절감한데 기초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지고 삶의 요구로 체질화, 생활화된것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우리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로 공고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다.

혁명대오의 혼연일체는 수령결사옹위를 정신적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대렬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의 투철한 소유자들로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을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해나가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로 키워나가시었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령도자를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김책동지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10월 일군들에게 일심단결은 말그대로 마음의 통일, 사상의 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관직을 따를것이 아니라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마음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었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과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충실성의 산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져 우리의 간부대렬은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는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 전민이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령도자의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되도록 하시고 특히 수령신뢰의 노래선률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여 선군시대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이 수많은 배출되도록 하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모진 시련과 고난을 헤쳐온 고난의 행군시기를 회고하시며 2000년대에도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계속 불러야 하며 이 노래를 통하여 195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던 군인들과 인민들의 정신세계가 새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2000년대의 영원한 수령신뢰의 송가로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천만군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처럼 수령결사옹위의 열혈투사로 준비해나갔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길영조영웅과 무재봉의 17명 영웅전사들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한다는것은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과 수령이 이룩한 령도업적을 계승하는것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6월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도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나날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서도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에 깃든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천만국민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도덕의리로 심장깊이 새기고 창조와 건설투쟁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녕원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받기하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신 발전소를 기어이 일떠세워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가려는 고결한 충정을 지니고 20여년간 결사전을 벌려 당창건 60돐을 맞으며 발전소언제를 완공하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 일떠세움으로써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는 영웅적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도록 하시고 자신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면서 제일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이 있다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지 못한것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여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어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7(2008)년에만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초고전력전기로와 남비정련로를 공화국창건 60돐까지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한 강선의 로동계급이야말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였다.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에서 강철이 짹짹 생산되어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강선의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강선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불씨로 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주체98(2009)년 12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였기에 성강의 로동계급은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내대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고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며 끝끝내 우리 식 강철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최후승리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산소용융로에서 쏟아져나오는 붉은 쇠물은 성강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끓어번지는 충정의 쇠물이며 정련로에서 뽑아낸 주체강철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사상의 산물,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라고, 주체강철은 바로 주체철 더하기 사상에 의하여 세상에 탄생하였으며 주체강철이야말로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투철한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것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본요구, 기본적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을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투철한 기상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면서 결사전을 벌려 기한전에 물길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희천발전소건설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희천속도》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기풍이 온 사회에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목숨 바쳐 끝까지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세찬 파도와 맞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간석지건설을 완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9(2010)년 7월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고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는 1980년대에 인민군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일심단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정신력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